



전북농협은 전국 지역본부 최초로 1층 로비에 '전북 고향사랑 답례품 홍보관'을 열어 내방 고객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답례품과 일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선물세트를 소개한다고 7일 밝혔다.

언제나 좋은 선물, 전북 농축산물

전북농협, 전국 지역본부 최초 '고향사랑 답례품 홍보관' 오픈
내년 1월 제도 시행 앞두고 도내 지자체와 적합 상품 추가 발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국 지역본부 최초로 1층 로비에 전북 고향사랑 답례품 홍보관을 열어 내방 고객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답례품과 일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선물세트를 소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맛과 멋의 고향 답례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함께 적합한 상품을 추가 발굴해 지자체 대상 홍보용 e-북 제작 △수도권 소비자 대상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홍보대전 등 농축산물 중심 답례품이 선정돼 전북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맛과 멋의 고향 답례품을 살릴 수 있게 시군별로 품질이 우수한 상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면서 "20만 전북 농업인이 생산한 정성이 담긴 우리 농축산물이야말로 진심을 담아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선물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효자상품인 만큼 많은 애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리 아빠는 수소상용차 만들어요”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H-맨이 돌아왔다' 시즌 돌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최준혁) 노사가 아빠들과 아이들 기를 실려주는 이색 사회공헌 프로그램 'H-맨이 돌아왔다' 시즌에 돌입했다.

'H-맨이 돌아왔다'는 현대자동차 맨(Hyundai-Man)의 약칭인 'H-맨'을 주인공 삼아 수소상용차 만들기를 통해 인류 공영의 당면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아빠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세계 수소상용차 메카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 중 소속 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수직원 15명을 선발해 '아빠가 만드는 친환경 상용차'를 주제로 5~6월 두 달 간에 걸쳐 특별수업을 진행 중이다.

이 특별수업에서 참여 아빠들은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전신탈을 뒤집어 쓴 채 플라스틱 남용으로 인해 고령화되고 있는 해양 생물들 입장에 서서 환경오염 위험성을 자녀 및 반 친구들에게 알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환경보호를 생활화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아빠들과 아이들 기를 실려주는 이색 사회공헌 프로그램 'H-맨이 돌아왔다' 시즌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야 한다는 약속을 이뤘다. 또 사회적 기업 우시나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제품인 수소 스트러 엑시언트와 수소버스 일렉시티를 캐릭터화 해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모델로 재탄생시킨 수소 상용차 캐릭터 인형을 자녀 및 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녀 및 반 친구들에게는 친환경 수소상용차를 만드는 자랑스런 아빠 모습을 보여주고, 참여 직원들에게 전 세계 퍼스트 무버로

서 수소트럭과 수소버스를 양장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H-맨이 돌아왔다' 시즌2와 시즌3도 준비 중이다. 시즌2에선 직원 가족과 전북지역 화가들을 연계해 친환경 상용차 그림을 함께 그린 뒤 전시회까지 진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시즌3에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헌혈 등 사회공헌활동을 서로 연계하는 뜻 깊은 활동을 준비 중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러·우 사태 대체 수출국 바이어 발굴·상담 지원

경진원, 베트남, 인도, CIS 국가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전북도경제진흥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수출국 바이어 발굴과 상담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전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운영한다. 상담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주변 CIS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와 전라북도 해외통상개발센터가 위치한 베트남, 인도 등이다.

상담회를 참여하는 도내기업 30업체는 바이어 45개사와 매칭되며 80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에 진행된 바이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이 주선행, 실질적인 수출관로 다각화와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경진원은 온라인 상담환경이 부족한 도내기업들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진흥원 내 구축된 화상상

담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화관련 세부사항은 전화(063-711-2065/2072)로 문의하면 된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국제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도내 업체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들의 애로에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및 활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 수출 통합지원센터(1644-7155) 운영 △전라북도 해외통상개발센터(베트남·인도) 운영 △현지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 박람회 지원 △FTA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러·우 사태 대체 수출국 바이어 발굴·상담 지원

경진원, 베트남, 인도, CIS 국가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전북도경제진흥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수출국 바이어 발굴과 상담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전북도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운영한다. 상담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주변 CIS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와 전라북도 해외통상개발센터가 위치한 베트남, 인도 등이다.

상담회를 참여하는 도내기업 30업체는 바이어 45개사와 매칭되며 80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에 진행된 바이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이 주선행, 실질적인 수출관로 다각화와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경진원은 온라인 상담환경이 부족한 도내기업들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진흥원 내 구축된 화상상

담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화관련 세부사항은 전화(063-711-2065/2072)로 문의하면 된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국제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도내 업체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들의 애로에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및 활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 수출 통합지원센터(1644-7155) 운영 △전라북도 해외통상개발센터(베트남·인도) 운영 △현지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 박람회 지원 △FTA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

농진청-서울 농기센터, 10일 애완곤충 경진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서울시 농기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한서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TEC)에서 '2022 제6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국내 정서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촉진하는 국민참여형 축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을 주제로 △주제관 전시 △9분야 18종목 애완곤충 경진대회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국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오감만족 사계절 곤충'을 주제로 사계절 만날 수 있는 곤충 30종과 지난해 발굴한 신규 애완곤충인 넓적바사마귀, 흑개미, 외팔잠수풍뎠이 3종이 전시된다. 애완곤충 경진대회에서는 △신규 애완곤충 발굴 △우량곤충, 멋쟁이 곤충, 귀요미 곤충, 타잔 곤충 겨루기 △곤충표본·디오라마 제작왕 곤충 과학왕관왕 기록상 △곤충 퀴즈대회 △하늬 곤충 활용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무별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점), 서울특별시시장상(6점), 농촌진흥청장상(4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15점) 등 총 54점을 시상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곤충 숭배픽업 랜선 곤충 키우기 곤충퀴즈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곤충 소리 듣기 곤충 민초보기, 사마귀 딱이 주머니 뉴미디어 아트로 키우는 곤충

- 신규 애완곤충 발굴
- 우량곤충 등 겨루기
- 디오라마 제작왕 선발
- 우수사례 발표 등

바이오리액팅성 2기 교육생 모집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바이오·식품 관련분야 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며 한 해 2기수 24명이 참여하는 바이오리액팅성사업의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바이오리액팅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한국바이오협회와 주관하며 전국 7개 바이오·식품 특화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여 2022년 총 210명 교육, 140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로 9년차 교육을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937명의 취업인력을 배출해 바이오·식품 산업의 우수현장실무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GMP 개론 4주와 현장실습 9주로 총 13주에 걸쳐 제품생산, 품질분석 교육 및 현지자 특강과 함께 우수기업/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의 기회를 더욱 늘려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에 집중하며, 특히 예비창업자의 면접스킬을 키우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 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 월 5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해 교육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 모집은 매년 1기는 4월 중, 2기는 6월 중 사립인(www.sarain.or.kr)을 통해 신청 받는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서울시 농기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한서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TEC)에서 '2022 제6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국내 정서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촉진하는 국민참여형 축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을 주제로 △주제관 전시 △9분야 18종목 애완곤충 경진대회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국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오감만족 사계절 곤충'을 주제로 사계절 만날 수 있는 곤충 30종과 지난해 발굴한 신규 애완곤충인 넓적바사마귀, 흑개미, 외팔잠수풍뎠이 3종이 전시된다. 애완곤충 경진대회에서는 △신규 애완곤충 발굴 △우량곤충, 멋쟁이 곤충, 귀요미 곤충, 타잔 곤충 겨루기 △곤충표본·디오라마 제작왕 곤충 과학왕관왕 기록상 △곤충 퀴즈대회 △하늬 곤충 활용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무별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점), 서울특별시시장상(6점), 농촌진흥청장상(4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15점) 등 총 54점을 시상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곤충 숭배픽업 랜선 곤충 키우기 곤충퀴즈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곤충 소리 듣기 곤충 민초보기, 사마귀 딱이 주머니 뉴미디어 아트로 키우는 곤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서울시 농기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한서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TEC)에서 '2022 제6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국내 정서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촉진하는 국민참여형 축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을 주제로 △주제관 전시 △9분야 18종목 애완곤충 경진대회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국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오감만족 사계절 곤충'을 주제로 사계절 만날 수 있는 곤충 30종과 지난해 발굴한 신규 애완곤충인 넓적바사마귀, 흑개미, 외팔잠수풍뎠이 3종이 전시된다. 애완곤충 경진대회에서는 △신규 애완곤충 발굴 △우량곤충, 멋쟁이 곤충, 귀요미 곤충, 타잔 곤충 겨루기 △곤충표본·디오라마 제작왕 곤충 과학왕관왕 기록상 △곤충 퀴즈대회 △하늬 곤충 활용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무별 전문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점), 서울특별시시장상(6점), 농촌진흥청장상(4점), 국립농업과학원장상(15점) 등 총 54점을 시상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곤충 숭배픽업 랜선 곤충 키우기 곤충퀴즈가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곤충 소리 듣기 곤충 민초보기, 사마귀 딱이 주머니 뉴미디어 아트로 키우는 곤충

지역소멸위기 극복 농어촌 개발 '총력'

농어촌공 전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구의 유입을 위해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불편 없는 정주 공간을 만들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어촌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개발 188지구, 어촌개발 19지구 등 총 177지구(총 1,510억)를 추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정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이고, 어촌뉴딜 사업은

나후된 어촌의 필수 생활SOC를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난개발과 위태로소가 되는 마을 주변의 공장, 축사, 민집, 유희시설 등을 정비해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신규사업이다.

특히 농촌협약은 주민 생활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두고 지역 여건과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 투자방식의 새로운 제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2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은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총 5개 시·군이 선정돼 5년 동안 국비 총 1,3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촌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을 신협 서포터즈 '어부바 프렌즈' 모집

신협, 19일까지 지원서 접수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2022년 신협 공식 서포터즈 '어부바 프렌즈'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신협 '어부바 프렌즈'는 신협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신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신협에서 자체 선발하는 임직원 서포터즈 10명과 함께 올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신협의 가치에 공감하고 금융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소정의 활동비와 어부바 굿즈, 수료증 등이 제공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금도 수여된다.

신협 '어부바 프렌즈'의 선발은 6월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한 뒤 △서류전형 및 면접정형을 거쳐 △29일 신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협 블로그(blog.kr)에 게시된 어부바 프렌즈 모집 공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